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동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느라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대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고목을 쓸어 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구경꾼들은 고목에게 훈장을 달아주자고 한다.
- 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고목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2. 위 시를 감상하고 나눈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단 :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인생에서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야.
- ② 춘향 : 맞아.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잖아.
- ③ 방자 : 그러고 보니 '상처가 더 꽃이다.'란 표현이 왜 역설 표현인 줄 알겠어.
- ④ 월매 : 이 시를 보니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란 꼭 예쁜 것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면 모든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 ⑤ 몽룡 : 그래. 시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봐. 고목의 상처를 알아보는 걸 보면.

3. 시인이 심미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 두 대상의 특성을 대조하여 의미를 강조함.
- ㉡ 대상을 자세히 묘사하여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함.
- ㉢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여 내용을 강조함.
- ㉣ 역설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 ㉤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단어 배열을 달리하여 의미를 강조함.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4. 이 시에 담긴 시인의 심미적 인식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 ① 어린 매화나무의 화사함에 매료되었다.
- ② 어린 매화보다 고목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 ③ 고통을 이겨낸 고목의 상처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 ④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고목의 모습이 애처롭다.
- ⑤ 추위 속에 꽃을 피워낸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이 놀랍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했다.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 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내 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빠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애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박깜박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 낼 수가 없다. 둘 중의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쩌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엘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 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 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별름별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 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 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릴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 주고 술만 거꾸 마셔 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으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A]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히 한 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만큼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 -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찌우, 글썽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

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
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
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
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히 하고 코를 풀었다. 그
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
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
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
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
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
빵거리고, 자전거가 썽썽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
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
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반감
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여러 등장인물들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들을
현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다른 인물들의 말을 통해 ‘나’와 아버지의 위상이 뒤바
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아버지의 외양을 다른 대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나’
의 시선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할 때, ‘노새’와 대비되는 소재 4개 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윗글에서 ‘노새’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
재로,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7. <보기>는 ‘나’가 쓴 일기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 나는 달아난 노새를 찾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집
을 나섰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을 때 나는 우쭐한 마
음이 들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아버지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날이 저물 무렵에 나와 아버지는
우연히 동물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얼룩말 우리
앞에 멈춰 서서 잠시 얼룩말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때
정든 노새를 잃어버려 슬픔에 빠진 아버지가 상실감을 달
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원을 나온 후 아버지는
동네 부근의 술집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소주를 마신
후 ㉢나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었다. 우리가
기분 좋게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노새가
소란을 일으켜 순경이 왔다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골목길로 나갔기
때문에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아버지가 또 한 마리
의 노새처럼 느껴졌고 급히 아버지의 뒤를 쫓았다.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

8.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드러난다.
- ② 작품의 제목이 ‘노새 두 마리’인 이유를 드러낸다.
- ③ ‘노새’가 가족의 생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는 노새가 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⑤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버지가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 ② ㉧: ‘나’와 아버지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노새를 찾기 위해 동네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음이
드러난다.
- ④ ㉩: 노새를 찾지 못해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술집에서 ‘나’가 예상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자
놀라워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3. (나)에서 ㉠에 들어갈 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을 불어 넣는 마법사의 물

영국 왕립 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Nullius in verba)'입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파스퇴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 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퇴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파스퇴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지요.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죽어 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다고 믿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둘씩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자유 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으로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

코페르니쿠스 역시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1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살아나가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표어나 신조 따위로 삼는 말
- ② ㉢ : 준비나 대책이 튼튼하고 치밀하여 조금도 허점이 없이
- ③ ㉣ :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됨
- ④ ㉤ :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는 설
- ⑤ ㉥ :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정한 가정

15. 글쓴이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 ① 당연한 상식과 믿음을 의심하는 순간 진실이 살아난다.
- ② 상식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
- ③ 세상은 변하므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비판 정신을 지녀야 한다.
- ④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과학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다.
- ⑤ 과학자들은 철학자들과 달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과 관련 있는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보여 준 후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에 대한 차이점을 밝히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④ 대상의 행동이나 상황의 변화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⑤ 대상의 형태, 색채, 감촉, 향기, 소리, 맛, 분위기 등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내며 독자를 이해시키고 있다.

1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는 일을 뜻한다.
- ②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자유 낙하 실험을 했다.
- ③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④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와 달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했다.
- ⑤ 파스퇴르는 미생물이 자연 발생한다고 믿고, 실험을 통해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입증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지만 제가 세월이 흘러서 좀 자라고 난 뒤에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만다꼬’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는 게 힘에 부칠 때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만다꼬’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다꼬 이것을 해야 하지? 만다꼬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떠밀려서 생각하는 건가?’ 저는 ‘만다꼬’라는 질문을 찾으면서 제가 불필요하게 힘을 들이고 있던 곳에서 힘을 거두어들이 수 있었어요.

(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하며 사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남의 눈’이라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뒤쳐지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식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살아가는 문화권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욕망이 아닌 욕망을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차를 몰아라, 이런 코트를 입어라, 이런 집에서 살아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게 될 때는 그게 스스로만의 욕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만다꼬’를 되새겨 보기를 권합니다. 뭔가를 굉장히 갖고 싶어질 때 ‘만다꼬?’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면 이게 정말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에 휘둘려서 잠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 수도 있죠.

(라)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음료는 어디 있나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최선은 달리고 또 달리고 쉴 새 없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최선은, 최선을 다해서 쫓기는 마음 없이 쉴 때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을 부리면서 힘을 비축할 때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이 아닌 내 인생을 살려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음료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마)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이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을 정도의 조울을 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에 힘을 뺄 수 있어야 정말로 힘을 쥐야 할 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그래야 리듬이 생기죠. 음악에서도 강박 강박만 있으면 리듬이 생겨나지 않죠. 강박이 있으면 약박이 있고, 음표가 있으면 쉼표가 있고, 그래야 리듬이 생겨나고 그걸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 김하나,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18. 위 강연의 주제를 고려할 때 ‘만다꼬’의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다.
- ② 상대방에게 편잔을 주는 어감이 있다.
- ③ 남들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다.
- ④ 듣는 사람에게 허무하고 무기력해지는 말이다.
- ⑤ 불필요한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성찰하게 한다.

19. 위 강연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 마라톤과 음악 등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이다.

㉡ 마라톤과 음악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근거로 추론하고 있는 유추이다.

㉢ 인생과 음악이 지닌 공통점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유추를 활용했다.

㉣ 다양한 구체적 사실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귀납 논증이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냈으므로 연역 논증을 활용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20. 위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 ② 힘들 때마다 목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뜻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
- ③ 강박과 약박, 음표와 쉼표가 함께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 만들 수 있다.
- ④ '만다코'라는 질문으로 스스로의 욕망인지, 주입된 욕망인지 성찰할 수 있다.
- ⑤ 마라톤에서 최선을 다해 달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료를 마시며 쉴 때도 있다.

21. 위 강연에서 인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 ① 말하는 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말하는 이가 더 바람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청중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 ③ 말하는 이가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여 청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④ 말하는 이가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여 청중의 신뢰감을 얻고 있다.
- ⑤ 말하는 이가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았을 경험을 이야기

22. 위 강연을 추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 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
- ② 행복하지 않다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 ③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
- ④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
- ⑤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법 없이,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국어의 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 있다.

(나) 국어의 단모음은 ㉡, ㉢, ㉣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첫째, ㉡에 따라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으로 나눈다.

둘째, ㉢에 따라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 혀의 위치가 중간인 중모음, 혀의 위치가 낮은 저모음으로 나눈다.

셋째, ㉣에 따라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 나는 평순 모음과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린 상태에서 소리 나는 원순 모음으로 나눈다.

(다)

㉠	전설모음		후설모음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ㅏ	ㅑ
중모음	ㅓ	ㅕ	ㅗ	ㅛ
저모음	ㅗ		ㅜ	

23. (다)의 ㉡와 ㉣에 들어갈 모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적은 것은?

- ① ㅡ, ㅓ ② ㅡ, ㅗ
 ③ ㅡ, ㅑ ④ ㅑ, ㅓ
 ⑤ ㅑ, ㅗ

24. (나)와 (다)의 ㉠,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적은 것은?

- | ㉠ | ㉡ | ㉢ |
|------------|----------|----------|
| ① 혀의 앞뒤 위치 | 입술의 모양 | 혀의 높이 |
| ② 입술의 모양 | 혀의 높이 | 혀의 앞뒤 위치 |
| ③ 혀의 높이 | 입술의 모양 | 혀의 앞뒤 위치 |
| ④ 입술의 모양 | 혀의 앞뒤 위치 | 혀의 높이 |
| ⑤ 혀의 앞뒤 위치 | 혀의 높이 | 입술의 모양 |

25. 다음 중 ㉠에 해당하는 모음은?

- | | |
|-----|-----|
| ① ㅐ | ② ㅑ |
| ③ ㅓ | ④ ㅕ |
| ⑤ ㅗ | |

26. 다음을 읽고 소리의 길이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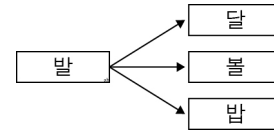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빛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얹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 ① ㉠과 ㉡은 길게 발음해야 해.
- ② ㉢과 ㉣은 짧게 발음해야 하는 단어야.
- ③ ㉢의 '눈'은 '첫눈'의 '눈'과 같이 길게 발음해야 해.
- ④ ㉠과 ㉢을 통해 소리의 길어도 음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⑤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에는 '말', '배' 등이 있어.

27. 그림이 설명하려는 내용은?



- ① 각각 한 글자로 된 단어이다.
- ② 말놀이에 자주 쓰이는 단어로 그림카드를 만든다.
- ③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지므로 주의한다.
- ④ 의미를 공유하는 부분은 'ㅂ'이므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⑤ '발'에서 하나의 소리를 바꾸면 '달', '볼', '밥'이라는 다른 뜻의 단어가 된다.



1) [중] ⑤

[해설] '등치도 가지도 꺾이고~ 빛깔이 다 다르다'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백 년을 살아온 고목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2) [중] ⑤

[해설] 고목에 물린 구경꾼들의 모습을 통해 시인이 고목의 상처가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은 짐작할 수 있으나, 위 시만 읽고는 시인이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3) [중] ⑤

[해설] ㉠은 1~2행에 드러나 있고, ㉡은 4~9행에 드러나 있다. ㉢은 마지막 행에 드러나 있고, ㉣은 18행에 드러나 있다.

4) [중] ③

[해설] 시인은 위 시를 통해 고통을 이겨 낸 고목의 상처가 어린 매화나무의 꽃보다 더 아름답고, 상처가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심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5) [중상] ⑤

[해설] '나'는 동물원에서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말이나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버지의 외양이 말이나 노새와 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① '나'와 아버지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에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반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은 있으나 '아버지' 외에 다른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는 찾을 수 없으므로, 여러 등장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어머니나 칠수 어머니의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나'와 아버지의 위상이 뒤바뀌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6) [중상]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해설] '노새'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를 상징하며, 구시대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존재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등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겨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7) [중상] ②

[해설] 아버지에게 노새가 중요한 것은 정이 든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계를 잇는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얼룩말을 바라본 것은 우리 안에 갇혀 사는 얼룩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 연민을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①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술집에서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니?'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섰던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중상] ⑤

[해설] '나'와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에서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할 수 없다. ①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힃 웃었다.'를 통해 '나'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알 수 있다. ②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는 아버지의 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이 '노새 두 마리'인 이유가 드러난다. ③, ④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를 통해 '노새'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며, 아버지가 현 상황을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9) [중상] ⑤

[해설] '나'는 술집에서 노새를 잃어버린 상황을 잠시 잊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이러한 생각이 깨어졌다고 했으므로 '나'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① 투박하고 단단한 아버지의 손을 통해 그동안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탄을 배달하며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달아난 노새를 찾지 못한 채 피곤하고 배고픈 몸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는 '나'와 아버지의 처지를 '길 잃은 나 그네'에 비유하고 있다. ③ 노새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동네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집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④ 노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버지는 잘 마시지 못하는 술을 거푸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중상] ②

[해설] 당시 사람들이 중요시한 가치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

11) [하] ③

[해설] 제시된 자료에는 무인이동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자율주행차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12) [하] ③

[해설] ㉠은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운전의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다는 자료이며, ㉡은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자료이므로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13) [하] ④

[해설] ㉠, ㉡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료이며, ㉢은 법적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이므로 자율주행차는 안전하다는 찬성 측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14) [중] ②

[해설] ㉠'철석같이'는 '마음이나 의지, 약속 따위가 매우 굳고 단단하게'의 의미이다.

15) [중] ①

[해설] 4문단의 '의심하는 순간 죽어 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깐요'를 통해 글쓴이가 ㉡과 같이

표현한 의미를 알 수 있다.

16) [중] ②

[해설] 윗글은 파스퇴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17) [중] ⑤

[해설] 파스퇴르는 미생물이 자연 발생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실험을 통해 미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입증하였다.

18) [상] ⑤

[해설] (가)에서 ‘만다꼬’를 통해 ‘불필요하게 힘을 들이고 있던 곳에서 힘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 [상] ②

[해설] ㉠ 위 강연은 ‘만다꼬’, 마라톤, 음악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인생에서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 (마)에서 인생과 음악의 유사점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이끌어내는 유추 논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20) [상] ②

[해설] 위 강연에서는 힘들어도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뺄 때 빼고 줄 때 주어 강약 조절을 하며 쉬어가기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21) [상] ④

[해설] (다)에서 카피라이터 출신이라는 직업적 전문성을 내세워 말하는 이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다.

22) [상] ④

[해설] 위 강연의 주제는 인생에서 힘을 뺄 때 빼고 줄 때 주는 것의 중요성이다. 따라서 모든 일에 힘을 주는 사람, 즉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위 강연을 추천하기에 적절하다.

23) [중] ①

[해설] 후설 평순 고모음은 ‘ㅡ’, 후설 원순 중모음은 ‘ㅜ’이다.

24) [중] ⑤

[해설] 단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후설 모음으로 나뉘며,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고,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뉜다.

25) [중] ③

[해설] ‘ㅑ’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다. ①, ②, ④, ⑤ 발음할 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다.

26) [특] ③

[해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 하지만, ‘봄눈’과 같이 단어의 첫음절이 아닐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

27) [하] ⑤

[해설] ‘달, 불, 밥’은 ‘발’에서 각각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를 바꾼 것이다. 이처럼 ‘발’이라는 단어의 ‘ㅂ’, ‘ㅌ’, ‘ㄹ’ 가운데 하나의 소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달’, ‘불’, ‘밥’이라는 다른 뜻의 단어가 된다.